



부록

토론 요약문
서기보고서
참가자 프로필



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 :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11월 3~4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 :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는 11월 3-4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아태지역에서 약 120여명이 공식 참가자와 참관자로 참가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 찬 문화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개회사에 이어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과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틀에 걸쳐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과 국제협력, 무형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관리 및 공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총 15개국 22명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각 세션 발표와 토론 후에는 듀벨 과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기보고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국제협력

제1세션은 알리셔 이크라마프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를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임돈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했으며, 이어서 좌장인 이크라마프 사무총장이 아태지역에 설립되는 카테고리 2 기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좌장은 지난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중국·일본 3개국 및 이란·불가리아 정부가 제출한 카테고리 2 기구 설립 제안서에 관해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아태지역 센터와 비롯하여 회원국들이 센터의 지리적인 측면보다는 역량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크라마프 사무총장은 임 교수가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예산마련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지원 대신 세제 혜택 등 연행자에 대한 간접 지원을 제공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예를 제시하였다.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한 노리꼬 아이카와-포르 유네스코 문화 부문 사무총장 보 자문관의 지정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개념에 관한 문제

박 교수는 아이카와-포르 자문관이 발표한 개념상의 과제,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올바른 정의, 무형문화유산 협약 내 두 목록의 목적·의미·기능, 등재 신청 평가 시 두 목록 간의 균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분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의미, 목적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는 협약의 핵심 철학적 배경과 상통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아·태무형유산센터가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의미와 목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 교수는 일반 대중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두 목록의 차이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보호목록이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아이카와-포르 자문관의 의견에 덧붙여, 박 소장이 기초발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목록이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로 말미암은 아태지역의 급격한 변화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하였다. 박 교수는 보호 노력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보호에 대한 긴급성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취약성과 중요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지역 내 활동 규모의 이유일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교수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현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국제사회의 국가들을 포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행자와 공동체의 참여와 균형있는 무형문화유산 다국적 등재는 다양한 지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센터가 향후 다국적 등재신청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아이카와-포르 자문관이 제안한 바와 같이, 센터가 지역기구로 활동하면서 산재한 인력을 모으고, 이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며, 경제적·기술적 자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창구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둘러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자원

회원국들의 협약 조항에 대한 오해는 두 목록의 불균형한 등재신청 및 등재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좌장은 센터가 협약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문서가 과거 유네스코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으며, 이는 현재 협약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들에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 문서는 회원국, 연행자, 전문가,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조항의 해석, 협약 내의 요점과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노로브 우르트나산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은 제1세션의 두 번째 토론자로, 임 교수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였다.

다국적 등재신청과 국경을 초월한 보호방안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의 토론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다국적 등재신청과 국경을 초월한 보호방안이다. 사무총장은 몽골의 일부지역이 중국 국경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등재신청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몽골은 한 차례, 중국과 장가(long song)를 공동 등재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두 국가 간의 공동 보호노력을 이끌어 내었으나, 여전히 공동등재의 신청 절차문제, 공동등재의 당위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토론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유산 문제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상호 존중이 없다면 다국적 유산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발생하는 등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역량 구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방안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교대 운영 등, 지역 기구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조직적인 협력 방안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협력 관계를 타 지역의 전문화된 센터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기관 및 공동체의 참여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박물관과 여타의 문화기관이 문화유산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중이 직접 체험하고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상호교류 사업 및 워크숍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동체의 참여와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접근법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량 구축과 연구-정책의 연계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발언을 마치며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정책입안자와 목록등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협약 개념의 이해 워크숍을 개최하

기를 요청하였다. 좌장은 연구와 정책의 연계에 대한 토론자의 마지막 주장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센터가 이러한 사회 여러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정책 입안자간, 연구자-실연자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 팀장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의 지정 토론자였다. 박 팀장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과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발표에서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접근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단체의 장점과 단점

박 팀장은 대한민국이 중요무형문화재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여러 무형문화유산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각의 유산에 대해 하나의 단체만을 인정하는 이러한 한국의 획일적인 관리 체계가 단체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경향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도한 관료화를 경계한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박 팀장은 한국이 공동체와 단체들의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관료화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을 통한 청소년 대상의 전승 촉진

박 팀장은 보유자-전승교육조교-이수자-전수생으로 이어지는 전승체계를 통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비공식 교육이 실시되지만, 최근 이러한 교육에 청소년의 참여가 줄어들고 종목에 따라서는 전승이 단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절반가량을 전통 음악 학습에 할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조교, 이수자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화로 인한 청소년의 무형문화유산 인식 변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적인 청소년들과의 세대 차이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갑작스럽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과 실제로는 무형문화유산이 아니며 무형 유산처럼 보이는 문화자산이 혼동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박 팀장은 이 때문에 서구화된 교육에 익숙해진 한국의 청소년이 마음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인도네시아의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이 무형문화유산 우수사례로 등록된 것에 비해, 한국은 오로지 대표목록 종목 등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수사례들에서 그 경험을 본받고, 모범 사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목록 등재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청소년의 참여와 접근성

한국은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여러 보존회를 통해 전시, 공연과 같은 공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박 팀장은 이러한 행사에서 청소년이 행사기획, 무형문화유산 연행 등 주체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팀장은 비공식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을 존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청소년 사이에서 어떻게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토론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문화코드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듀벨 과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세션 2

무형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 관리 및 공유

제2세션은 노리꼬 아이까와-포르 자문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우선,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실장이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 부장의 발표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 참여'에 대한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

송 실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 사업을 소개하였다. 한국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된 이후, 1964년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녹음, 촬영,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다. 기록화 작업의 첫 번째 시기인 1965년부터 1994년까지는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과가 제작을 관장하여 16mm 흑백과 칼라 필름으로 30분 분량의 단편물을 기록하였으며 두 번째 시기인 1995년부터는 무형문화재과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실로 이관되면서 기술과 예술 형식의 완전한 기록을 위하여 30분 이상의 영상물을 베타캠, 디지털베타와 HD로 제작하였다.

송 실장은 현재의 기록화 사업이 전수자와 관련 전문가, 제작팀, 사진가,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록의 내용은 해당 종목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전수 과정과 전수 환경, 전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 전승자 계보를 포함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존용과 보급용, 원본 자료를 나누어 보관한다.

공동체 기록과 활용

송 실장은 마지막으로 커티스 부장에게 공동체 기록의 관점에서 이러한 한국의 기록화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커티스 부장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이 보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다양한 관계자와 공동체, 후원자, 연행자들이 만들어낸 기록물들이 어떻게 해당 유산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 네트워크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드 벤드랜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분과 과장의 발표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적용과 그 범주'에 대한 지정 토론은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벤드랜드 과장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했으며 이 내용이 향후 센터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기록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였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통문화유산 기록과 지적재산권

이 교수는 전통 유산 기록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논의할 때 고려가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을 말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법의 대상이란 음악, 스토리, 춤, 의례 등 새롭게 생산된 표현물을 말한다. 둘째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다. 국내법 하에서는 창작자 또는 공연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셋째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고 사용할 때는 해당 유산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허가 받아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록 사업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해당 보유자들과 계약을 작성하였다. 이 교수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문화유산 기관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작성한 계약서가 방송국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계약과 비교할 때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단순하였음을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제도와 무형문화유산 보호간 갈등

이 교수는 지적재산권이 본래 상업 대중문화를 위하여 제정된 제도라는 점에서 전통문화유산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경우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매우 상이한데, 대중문화의 경우 내용의 창작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전통 문화에서는 공연자보다 문화의 본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불일치점은 시간적인 문제인데,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같이 창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작품들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 이 교수는 현재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주체가 사람이나 기업 또는 기관인 법 체제 하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제도는 문화 콘텐츠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 제정되었지만 무형문화유산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점에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를 무형문화유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적재산권을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에서 지적재산권의 정책적 고려

벤드랜드 과장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 교수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작업으로 인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작업 전이나 작업 도중 혹은 작업 후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벤드랜드 과장은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기 전에 프로토콜이나 계약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법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저작권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이론적 차이

벤드랜드 과장은 이 교수가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보호활동 취지간의 차이점에 대해 제기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해서 저작권 체계와 보호 활동은 모두 창의성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보호는 창의적인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 체계는 창조라든지 결과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소유권 및 국가간 공유되는 전통문화표현(TCEs)

벤드랜드 과장은 소유권에 대한 이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간 공유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다국적 접근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공유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의 문제를 살펴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역법에 대한 작업에 일부 시간을 할애했고, 지역의 전통지식 *TK*와 전통 문화 표현 *TCEs*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태평양,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의 법 모델 초안을 만들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접근성

벤드랜드 과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유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지

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적재산권 체계의 이론적 근거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특허라는 말 자체가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체계와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체계는 이들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장려하여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무형문화유산의 접근에 대한 규정을 갖는 것이 꼭 공정한 접근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가 무형문화유산의 접근성을 어렵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내와 국제적 상황 및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게유키 미야타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연구부 부장은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피지 원주민부 원어문화 연구소 연구원의 발표 '피지 목록작성 및 문화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서 발언하였다.

토착민 문화와 지역 역량강화

미야타 부장은 피지의 문화지도 사업이 전적으로 토착문화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실시된 반면, 일본은 자국내 유일한 토착민족인 홋카이도 아이누족 문제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안에 그다지 민감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지역 공동체와 전문가, 정부 사이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며, 피지의 문화지도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미야타 부장은 일본이 무형유산 분야에서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무형문화유산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수반되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문화유산 온라인과 일본 문화유산 웹 포털 사이트가 2008년에 개설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네트워크와 언어

미야타 부장은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는 맥락 하에서 정보와 기술 및 제도적 어려움과 함께 특히 언어 장벽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물론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는 자국의 언어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데이터 네트워크는 무형유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승자, 연행자와 지역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가 오로지 영어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작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야타 부장은 한국의 센터가 이러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며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야타 부장은 박 소장에게 센터가 정보를 보급할 때 사용할 언어에 대해 어떤 접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최근 센터가 발간한 뉴스레터 「무형문화유산 꾸리에」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센터 내부에서도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어떻게 번역하고 보급할 것인가, 어떤 언어를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열린 토론이 있었는데,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기는 하나 뉴스레터에 기고한 전문가의 자국어도 사용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또한 아태지역의 언어를 더욱 폭넓게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의 발표를 모두 마친 후, 발표·토론자와 회의 참관자 간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이어졌다.

기록화 작업과 공동체 및 실연자의 참여

천정업 세계무술연맹 차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작자의 관점이 아닌 연행자의 입장에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벤드랜드 과장의 견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정해진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기록화를 시행하는데, 이는 보유자의 입장이 아닌 제작자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는 기록화 사업에 연행자의 관점과 공동체의 참여를 동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장

김정수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은 이철남 교수에게 첫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교수의 발표를 무형문화유산은 창작이 아닌 원형의 재현이므로, 현 저작권 제도에 걸맞는 제작 환경이 갖추어 진다면 저작권 문제에 얽히지 않고 보다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교수가 언급한 국가 주도의 기록화 사업에서 무형문화유산 원형에 대한 문제보다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이 교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청소년 무형문화유산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김 연구관은 박 소장이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선양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이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센터의 역할 강조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박 소장이 제시한 이러닝 시스템 개발 계획이 청소년보다는 무형문화유산 실연자, 전문가, 일반 대중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닝 시스템 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겨냥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 연구관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발표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규 교육에 무형문화유산 학습과정을 편성하여 다양한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태무형유산센터도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 보호 문제

이 교수는 김 연구관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그가 이 교수의 발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한 매체 또한 여타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은 매체와 동등하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승무를 예로 들어 첫 번째 경우를 제시하였다. 실연자는 그 자체의 신분만으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나, 발생 후 긴 시간이 흐른, 대대로 전수되어 온 안무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장 기간의 만료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두 번째 예시를 통해 원형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외 한 소수민족의 고유의 공연을 기록하여 방송할 때, 그 공연이 원형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공동체에 잠재적인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가능성이 저작권 이외에 별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국제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대상 무형문화유산 전승 촉진 방안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논의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명의 장인이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비공식 혹은 전통적 교육방법이다. 그는 전통적인 혹은 구전의 교습방법을 소멸시키지 않고 대신 교사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촉진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방법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과를 학교에서 과외활동 혹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 역사, 지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교습법의 목표는 학생들이 습득한 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연행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습득한 것을 연습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와양wayang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은 와양을 연행할 기회를 얻어야만 하며 이런 식으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전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유기적인 과정으로서 조망되어야 한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수동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그 정도가 목표라면 단순히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웹상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연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급과 관련된 언어의 문제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급과 관련한 언어문제를 지적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설명은 영어로 되어야 하겠지만, 유산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는 그 고유의 언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보급되어야 하며, 또한 인쇄물 형태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도구로 전파되어야 한다. 그는 이 문제가 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저작권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또 무형문화유산 관련 저작권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이 설립되는 지역 기구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존재하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향후 개최될 국제회의 및 지역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했다.

»세션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3세션의 좌장은 박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본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과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연행예술유산진흥위원회 회장의 발표는 커티스 부장이 대독했는데, 이는 다른 회원국들과 한국에 설립되는 카테고리 2 센터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은 위험에 처한 언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문화지도 작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태무형유산 센터와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가 협력하여 실시한 인도문화지도 사업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웹포털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정보와 기술을 활용의 측면에서 웹 포털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로 아메레쉬와르 갈라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생태박물관학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베

트남에서 사용된 모델 사례를 제시했고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조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법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였다.

디에고 그라디스 미래를 위한 전통 연구소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설명했다. 그는 비정부기구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비정부기구는 공동체를 재생시키고 성숙한 상호관계 증진을 위해 정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그는 비정부기구를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분석했는데, 지역적 수준에서는 목록 작성 참여, 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량강화 및 교육적 인식제고 활동을 들 수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하에서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의 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티미니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은 제3세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및 정보체계를 주제로 한 발표의 지정 토론을 시작하였다.

리 부국장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목록 제작 작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목록 제작 작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목적, 방법론, 주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안정적이고 정보가 부족했다. 무형유산협약의 필요요건에 따른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은 공동체 참여의 부재와 목록들이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리 부국장은 목록의 정의, 범위, 고안자, 방법 및 과정 등 목록 제작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리 부국장은 베트남에서 지난 3년간 행해진 목록 제작 시범 프로젝트 몇 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동체의 참여라고 설명했다.

교훈과 과제

시범 프로젝트의 일례로 리 부국장은 닥 농 *Dak Nong* 지방의 공 *Gong*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참여 학자들의 도움으로 소수 민족 출신의 베트남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쓸 수 없으며 문화 및 유산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하여, 모든 학자들이 유산의 가치

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공동체 구성원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문화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리 부국장은 또 다른 문제로 목록 제작자들의 훈련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은 무형문화유산 정보는 총체적인 현상이며 전문 지식과 실기가 부족하면 확인과 분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목록제작자와 연구자들 모두 목록 제작 작업에 들어가기 전 역량 강화 훈련 워크숍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 1) 우선적으로 이들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목록을 만드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 2) 그들의 역할은 이러한 보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체를 지원하는 일이며,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마지막 사례로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기록 작업은 탐 록 *Tham Rock* 마을 내 타이 *Tay* 사람들이 1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인형극의 문화 전통을 되살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리 부국장은 아태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들을 해주었다.

-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을 비롯해 각국의 법적 보호 장치들에 대한 정보를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배포한다.
- 2) 연구자, 관리자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3) 정보규범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 4) 잠재적으로 이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연계하는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프로젝트 및 실행의 모범 사례들을 제공한다.
- 5) 공동체의 협력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

6)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박 소장은 베트남 정부의 무형유산 전반의 정책사업과 목록 작성노력은 물론, 국가목록 작성의 초기단계에서 목록의 정의, 범위, 대상, 구성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업에서 긴급보호목록 *Urgent Safeguarding List*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가목록 작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산간 서열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신중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는 갈라 교수가 발표한 '과거는 낫선 나라가 아니다-무형유산 전승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에 관한 지정 토론을 시작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 정보체계 그리고 네트워킹

최 교수는 갈라 교수의 발표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이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의 보호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할 때에는 무형문화유산의 항시 변화하는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형의 박물관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록 개념을 활용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살아있는 과정인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데 네트워킹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체계를 구축할 때는 기록의 표준 형식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때 표준 형식은 전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고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표준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최 교수는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경우 생기는 장점으로 사용자가 직접 창조한 콘텐츠 영역 내에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표준화시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문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각국과 각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완전성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누가 기록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 NGO, 지역 공동체, 그리고 연행자들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볼 때, 기록 공간으로 박물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두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형문화유산을 박물관에서 보호하고 있었지만, 무형문화유산을 박물관에 보관하자는 공식적인 의견은 2004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ICOM 총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간 문화재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의 이점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그는 NGO가 박물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무형문화유산의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화와 아카이브

좌장인 박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기록화와 아카이브는 상호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후 기록화와 아카이브와 관련된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보충의견에서 기록관리*archive*가 유형 기록을 다루는 것이라면, 정보관리*documentation*는 실제의 물리적인 기록이나 자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형 정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기록화와 기록정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갈라 교수는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누아투 국립 문화 센터 *National Cultural Centre in Vanuatu*의 현장 연구자 네트워크 *Field Workers Network*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보관리*archiving*는 바누아투 문화 센터에서 행해졌지만, 기록화 *documentation*는 살아있는 과정이며 아카이브의 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보가 수집되고 기록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논할 때에는 많은 용어들을 유형 유산 영역에서 차용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다시 개발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집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동 중국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단장은 제3세션의 세 번째 토론자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 단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출범 축하 인사와 함께, 센터와 유네스코의 조인식을 지켜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중국 입장에서 본 무형문화유산 보호, 목록화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역할
지방 단장은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문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가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문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NGO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간의 관계이다.

중국의 경우 NGO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NGO는 전에 없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방 단장은 중국에 국가, 성, 시, 주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록 제작 체계를 도입했다. 국가차원의 목록은 1,00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단장은 그라디스 소장의 논문 중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소비주의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부담을 다루었다. 중국에서 그렇듯이 지나치게 방대한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게 되고 유산 보호에 아무리 많이 투자하여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많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돈을 벌고 이를 통해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는 목적과 형태에 잠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는 그라디스 소장이 언급한 NGO의 취약한 상황을 인용하며, 무형문화유산 역시 정치적·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중국에 새로이 설립되는 무형문화유산 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논의를 마쳤다.



제3세션의 마지막 토론자는 임장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로 각 세션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학계의 연구자들에서부터 시민운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표자들의 논의에 대해 언급한 후, 자신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의 연구자의 위치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인도의 문화 지도 *Cultural Atlas of India*에 대한 첫 번째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00년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문화유산 지도를 만들려고 시도했었기 때문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지도제작 과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위치를 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은 지리학적인 민족성이나 사람들의 언어 범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유산은 숫자나 양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쉽게 지도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 형태로 지리 및 환경적 요소들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2000년에 이 프로젝트를 폐기했고 대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책을 편찬했다. 임 교수는 인도의 문화 지도가 무형문화유산의 지도 제작에 있어 많은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갈라 교수의 무형문화유산 박물관에 대한 발표에 관해 무형문화유산 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베트남의 환경박물관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는 박물관 안의 유산이 10~20년 후에도 여전히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유형으로 박물관 안에서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둘러싼 NGO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주 정부의 환경 파괴에 맞서 무형문화유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NGO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로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보호목록에 등재시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NGO가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장려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3세션 지정토론 후 공개토론이 이어졌다.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갈라 교수는 박물관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때 무형 유산을 활용

하지만 유형 유산에 집중된 전통적 박물관을 만든다면 실제로는 무형문화유산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는 임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는 이어서 하롱 환경박물관(Halong Ecomuseum)은 실제 박물관 소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종류의 박물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박물관은 기록과 세대간 전승을 통해 어부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긴급히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 내의 유동적인 시민공간이다.

그는 이러한 유동적인 문화 공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왔다고 언급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략 향후 20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라 교수는 어떤 사람도 100년 전의 전통의상을 입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어떤 사회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소유권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물론 세계화와 관광이 야기하는 원심분리적인 힘이 무형유산과 공동체를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정체성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이들을 다시 묶어내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관계를 조정하여 변화가 공동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센터의 역할이다.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NGO의 역할

그라디스 소장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NGO가 유네스코에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 교수의 언급에 답변했다. 그는 NGO의 기능은 자문 기관 역할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GO가 시민사회의 특정 부분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NGO가 시민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형유산 협약에 따라 공동체가 유산 보호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시민 사회 단체들은 공동체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을 후원하고 격려하여 공동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협약에 따르면 공동체는 유네스코 긴급보호목록이나 대표목록에 등재하도록 유산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유산이 이 목록 중 하나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NGO는 공동체가 정부에 압박을 가하여 이것을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라디스 소장은 청소년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콰도르 *Ecuador* 카나르 *Cañar*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은 문화재 부흥 운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되돌아온 사람들의 통합과 사회적 불균형 현상을 해결한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NGO는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의 시도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에 앞서 이번 회의에서 서기를 맡은 갈라 교수의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의 활동과 역할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중대한 역할에 대한 실질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국가 차원의 등재 신청과 다국적 등재 신청의 불균형에 대한 논의, 회원국들의 국가 차원의 등재 신청 관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지역적 작업에 착수하고 지역 단위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작업에 정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카테고리 2 기구는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역 센터라는 권한으로 좀 더 큰 범위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었다. 태평양에서는 지역적 등재 신청을 위해서 토착 지식 형태의 해양 항해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착 지식은 무형유산협약 이행 과정에서 경시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유산의 등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항해라는 개념은 공동체가 인간 사회와 전 세계 그리고 주변국과 접촉하기 위한 매우 유용하며 중요한 도구이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뉴질랜드의 지원으로 제작된 항해에 대한 DVD나 멀티미디어 프로젝트가 종전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또한 서아시아와 극동아시아에 걸쳐 있는 다도 문화에 대해서 아시아의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도는 공동체와 가

정에 존재하는 아시아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 관습 영역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아이카와-포르 자문관은 다국적 등재에 대한 이크라모프 총장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센터가 최초의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 2 기구인 CRESPIAL의 성공적인 사례에 기반하여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루에 있는 CRESPIAL 센터는 8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아이마라 *Aymara*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 사례,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등재하기 위해서 다국적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유엔 기관들과 협력하여 “하나로서의 유엔 *UN delivering as One*”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전 노벨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무하메드 유누스 *Muhammad Yunus* 총재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시골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유누스 총재가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담보 소액대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모델로 삼아서, 우선적으로 숙련공, 장인, 연행자들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유산 소액 대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새 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생각할 때,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빈곤퇴치를 위한 시각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엔기관과 함께 “하나로서의 유엔”의 수행을 증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화를 위한 기회 창출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갈라 교수가 지적했듯,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만능 해결책은 없지만 같은 사물에 대하여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론과 지식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나아갈 방법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이런 종류의 회의가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정부간 회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데 비해, 이런 종류의 회의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그는 추후 개최될 회의가 무형유산협약 비회원국들에게도 개방되어 유네스코의

권고 이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앞으로 센터와 더 많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센터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협약 간의 연결고리 찾기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1972년, 2003년, 2005년 협약 등 문화 분야 유네스코 협약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들 협약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2003년 협약과 2005년 협약은 연관성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내에서 이들의 연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지역 센터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간 협력 활동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아태지역의 3개 지역 센터가 정보와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 기능에 따라 분류되긴 했지만, 사실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센터가 향후에 공동 작업으로 회원국, 지역, 세계와 공동 활동을 해나가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장하였다.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또한 회의나 협력 등 지역간 활동이 유럽, 아프리카, 기타 지역과의 공조 하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간 대화 및 공동체 참여

그라디스 소장은 유럽 국가의 유일한 대표이자 유럽 국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역동성과 관심을 목격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의 임무가 더욱 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문화간 대화를 촉진할 것을 장려했다. 문화 간 대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그는 모든 사업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회

듀벨 과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하여 자신과 유네스코는 향후 박 소장과 센터가 역동적인 활동으로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라는 도전적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를 통해 상호 표현과 정보 공유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를 대표하여 본 회의가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해 준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박 소장은 이 회의에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 것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향후 협력과 개발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기쁨을 표현했다. 박 소장은 이 회의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의견과 제언들을 아·태무형유산센터의 향후 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